

백악관, 5월에 코로나19 대응팀 해체



▲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사진=apnews.com

미국 백악관이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연합뉴스'가 워싱턴포스트(WP)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부 대응팀 직원들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고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팀 해체 후 바이든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대응팀 해체 방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의료계와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약시오스/입소스 여론조사에 코로나19에 대해 지극히 우려된다고 답한 미국인은 9%가 채 안 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21년 1월에는 31%였다.

정부만 코로나 대응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존스홉킨스대학도 최근 팬데믹 추적 도구를 중단했다. 이 도구는 팬데믹 고조 시기 면밀히 활용됐으나 "3년 전보다 훨씬 달라진 여건"을 이유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대응팀을 줄일 정도로 팬데믹에 맞서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정착된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치료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생겨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일주일에 2천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아칸소주, 성전환자 학교 공중화장실 사용 금지

아칸소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학교 화장실 사용을 금지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칸소주 세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공화)는 이틀 전 성전환자가 학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 성전환자의 공립학교 공중화장실 이용 금지 등 포괄적 교육 법안에 서명하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사진=arkansasonline.com

이 법안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공립학교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라커룸에 성전환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각 학교가 1인용 화장실 등 성전환자가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인권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칸소 시민자

라호마, 테네시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됐다. 이 가운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주에서는 법안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하는 단체 '인권 캠페인' (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은 25개 이상 발의돼 있다.

유연합의 훌리 디슨 국장은 "그들이 시민 인권을 존중하기를 거부한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주 정부가 각 학교에 성전환자용 개별 화장실을 지을 돈을 지원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이런 성전환자 규제를 적용한 주는 아칸소주가 네 번째다. 앞서 역시 공화당 소속 주지사 있는 앨라배마와 오클

프렌치 불도그, 리트리버 제치고 인기 반려견 1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견으로 프렌치 불도그가 꼽혔다.

지난 22일 '뉴스'이 CNN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반려견 등록단체 아메리칸 켈날클럽(AKC)은 전일 프렌치 불도그가 지난해 가장 인기 있는 반려견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30년 이상 1위 자리를 유지해온 반려견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제친 결과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셰퍼드, 푸들 등이 프렌치 불도그의 뒤를 이었다.

미국에서 프렌치 불도그의 인기는 2012년에 14위에 오르고 2021년 2위에 오르는 등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높아져 왔다. AKC는 "프렌치 불도그는 똑똑하고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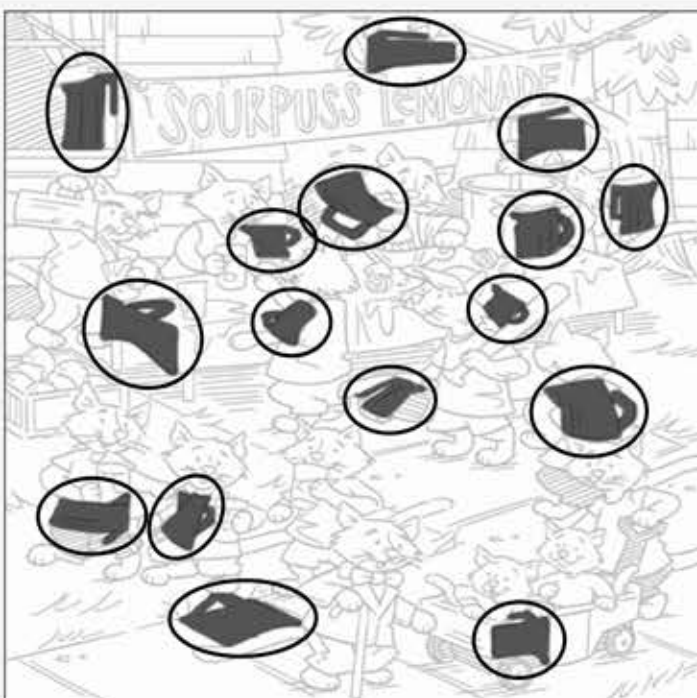
▲ 지난해 가장 인기 있는 반려견 순위 1위에 오른 프렌치 불도그. 사진=shutterstock

견종으로 다양한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다며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두루 사랑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 AKC는 "프렌치 불도그는 일반적으로 잘 짖지 않고, 대형견만큼의 운동량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파트나 작은 집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면서도 "좁은 콧구멍과 작은 기도 때문에 호흡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수의사는 교배된 품종을 구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렌치 불도그가 반려견으로 인기를 끌며 일부 프렌치 불도그의 몸값은 최대 수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날말퍼즐 정답

1 기	독	2 교			3 미	소	
와		4 황	5 공	무	지		6 부
7 집	8 단		인		9 수	10 공	업
	11 금	지				자	
	지				12 온	천	
13 일	교	14 차		15 주		16 주	17 야
정		18 계	란	말	19 이		유
	20 공	부			21 동	창	회